

[2026] 한주간 쉽게 보는

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

Jeju News Keyword Trends

No. 101



Contents

※ 대상 언론사 : 한라일보, 제주일보, 제주매일, 제민일보, 삼다일보, 제주의소리, 헤드라인제주

※ 대상 기간 : 2026.07.23~2026.07.29

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

▪ 정치·행정	1
▪ 경제·관광	2
▪ 지역·사회	2

2 분야별 뉴스 Word Cloud

▪ 정치·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	3
▪ 경제·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	6
▪ 지역·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	9

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

○ 제주지역 ①정치·행정, ②경제·관광, ③지역·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

분야	주요 키워드
정치·행정	추경(감액), 위성곤(민선), 크루즈, 인공지능(AI), 기본사회
경제·관광	관광객(여행), 농촌융복합, 푸파페, 콘텐츠, 수출(바이어)
지역·사회	폭염(열대야), 구조(이송), 꽃자왈, 가뭄, 물놀이

※ 분석 기간 : 26.07.23.~26.07.29

대상 언론사 : 한라일보, 제주일보, 제주매일, 제민일보, 삼다일보, 제주의소리, 헤드라인제주

○ (정치·행정 분야) 주요 보도 내용

정치·행정	추경 (감액)	- 민선 9기 첫 추경 4,615억 원 편성...상임위 155억 감액 - 예결위 '관행 없는 원점 재검토' 선언...심사 진통 - 미집행 예산 1,700억 원 육박...재정건전성 논란
	위성곤	- 위성곤 지사, 행안부·국토부 잇달아 면담...선도정책 지원 건의 - 항공좌석 부족 대응 행정부지사 직속 TF 구성 지시 - 첫 조직개편 수정 의결·공약실천계획 10월 확정
	크루즈	- 제13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...'아시아 크루즈 4.0' 비전 제시 - 동북아 크루즈 허브 도약 선언...준모항 정례화 추진 - 크루즈 관광객 입출국 간소화 법안 발의
	인공지능	- 공공부문 AX 선도정책, 국가 표준모델화 추진 - AI 기반 분산에너지 통합 감시체계 구축 착수 - AI 공유주차 등 주민밀착 공약 예산 도의회 제동
	기본사회	- 제주형 기본사회 시범도시 지정 건의 - 민선 9기 비전 '기후경제수도 제주'...100대 과제 추진 - 사회연대경제 혁신 모델 구축 지원 요청

○ (경제·관광 분야) 주요 보도 내용

경제·관광	관광객 (여행)	- 제주 관광 양적 회복 속 체류·소비는 감소 - 고부가 럭셔리 관광시장 공략 본격화 - 여름 휴가철 제주공항 154만 명 이용 전망
	농촌	-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 국제박람회 '푸파페 제주' 개막 - '농촌융복합산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돌파구' - AI·AX 시대 K-6차산업 대전환 국제포럼
	푸파페	- '폭싹' 열풍 타고 제주 6차산업 훈풍 - 제주상품 구매상담회 64억 원 상담 실적 - 경력단절여성 창업기업·청년 협업 성과
	콘텐츠	- 도외 유튜버 제주 장기체류 콘텐츠 제작 지원 - 한일 펀드 1호 투자, 제주 AI 콘텐츠 기업 '새로핌' - 마을여행 '카름스테이' 서울 도심서 팝업
	수출 (바이어)	- 상반기 제주 수출 4억4천만 달러...역대 최고 -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...107억 원 구매의향서 - 무역의 날 '수출의 탑' 포상 신청 접수

○ (지역·사회 분야) 주요 보도 내용

지역·사회	폭염 (열대야)	- 제주 전역 폭염경보...낮 최고 36.5도 - 광어·돼지 폐사 등 폭염 피해 확산 - 취약계층 보호·도로 살수 등 폭염 대응 총력
	구조	- 백록담 인근 호흡곤란 등산객, 헬기 대신 도보 구조 - 해상·해안 사고 잇따라...인명피해도 발생 - 소방·해군 합동 수중구조 전술훈련
	꽃자왈	- 동북·북촌 풍력 확장 꽃자왈 훼손 논란 - 꽃자왈공유화재단-백두대간수목원, 생태 보전 협약 - 이도초 어린이들, 꽃자왈 나눔장터 수익금 기부
	가뭄	- 마른 장마에 초기 가뭄...토양수분 39곳 중 25곳 부족 - 가뭄대책 전담팀 가동...물뱀·양수기 선제 배치 - 농어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50% 긴급 감면
	물놀이	- 하천 물놀이 구역 안전관리 강화 - 민관 합동 물놀이 안전 캠페인 전개 - 심정지 소생·해파리 쏘임 등 물놀이 사고 주의보

2 분야별 뉴스 Word Cloud

- 2026년 7월 23일~7월 29일 기간, 정치·행정, 경제·관광, 지역·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1030건임
 - 정치·행정 분야 336건, 경제·관광 201건, 지역·사회 493건임
 - * 대상 언론사: 한라일보, 제주일보, 제주매일, 제민일보, 삼다일보, 제주의소리, 헤드라인제주
- 정치·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, 주요 키워드는 추경(감액), 위성곤(민선), 크루즈, 인공지능(AI), 기본사회 등으로 나타남



[그림 1] 정치·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

○ 정치·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

정치·행정	추경 (감액)	- 민선 9기 첫 추경 4,615억 원 편성...상임위 155억 감액 · 제주도가 민선 9기 첫 민생 추가경정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4,615억 원 (5.8%) 늘어난 8조4,74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으나, 제주도의회 6 개 상임위원회가 계수조정을 통해 80개 사업 155억5,600만 원을 감액함. 교육청 추경은 교육위원회에서 별도 조정 없이 원안 가결됨. · 삭감 대상에는 버스 준공영제 운영비, 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비, 제주~칭다오 신규 항로 물류비 손실 보전, 서귀포의료원 노인질환전문센터 증축, 도청 탐라홀 스크린 설치 등이 포함되었으며, 환경도시위원회가 53억 원으로 감액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

정치·행정	추경 (감액)	규모가 가장 컸음. - 예결위 '관행 없는 원점 재검토' 선언…심사 진통 ·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(위원장 김봉현)가 민선 9기 첫 추경안에 대해 '관행 없는 심사'를 선언하고,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신규·중액 사업과 기존 사업 조정분을 포함한 6,004억 원 규모를 원점에서 재심사하기로 함. · 심사에서는 소아·분만 의료공백과 조천·구좌권 119구조센터 등 동부권 안전인프라, 15분도시 생활SOC 사업 지속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, 심사 마지막 날까지 감액 규모를 둘러싼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임시회 폐회 직전까지 진통이 이어짐. - 미집행 예산 1,700억 원 육박…재정건전성 논란 · 예결위 심사에서 올해 편성 예산 중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1,700억 원에 달해 대규모 불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, 애써 확보한 국비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 반납하는 사례도 논란이 됨. · 추경 재원의 71%인 3,309억 원을 내부거래와 임시 세수로 충당하고 지방채 상환용 재정안정화기금이 991억 원(68%) 급감했다는 점에서 '숫자만 늘린 전시성 예산'이라는 비판과 함께 재정 개혁 필요성이 제기됨.
	위성곤 (민선)	- 위성곤 지사, 행안부·국토부 잇달아 면담…선도정책 지원 건의 · 위성곤 지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AI 행정혁신, 제주형 기본사회, 사회연대경제 등 제주 선도 정책을 국가 표준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비·제도적 지원을 건의함. · 이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해 한국마사회 제주 이전, 제주 노선 항공 공급 확대, 제주~내륙 바닷길의 '가상도로' 인정을 통한 해상 물류비 지원 등 균형성장·교통물류·미래산업 핵심 과제 지원을 요청함. - 항공좌석 부족 대응 행정부지사 직속 TF 구성 지시 · 위성곤 지사가 주간정책회의에서 제주를 잇는 항공좌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부지사 직속 전담조직(TF) 구성을 지시하고, 항공좌석 확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뒷받침할 논리를 마련해 중앙부처·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함. · 회의에서는 폭염·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농업용수 공급과 농작물 피해 점검 강화, 기후경제 연계, 2027년 국비 확보 준비도 함께 강조됨. - 첫 조직개편 수정 의결·공약실천계획 10월 확정 ·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됨. 16실·국 68과를 15실·국 70과로 조정하되 공무원 정원 증원 규모는 40명에서 14명 축소되었으며, 입법예고 기간 부족과 외부 조직진단 부재 등이 지적됨. · 도는 첫 공약성과 점검회의를 열고 '먼저 만나는 미래, 기후경제수도 제주' 비전 아래 7대 전략 100대 과제의 공약실천계획을 10월 초 확정하기로 했으며, 계획 수립부터 평가까지 도민 참여 절차를 제도화할 방침임.

정치·행정	크루즈	- 제13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... '아시아 크루즈 4.0' 비전 제시 · 제주도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'아시아 크루즈 4.0: 경계를 넘어 하나로'를 주제로 제13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을 개최함. 15개국 277개 기관 730여 명이 참가했으며 80회 이상의 비즈니스 미팅이 성사됨. · 포럼에서는 상생·협력 기반의 통합 플랫폼 구축이 논의되었으며, AI 여행 플랫폼 등 크루즈 산업의 미래 전략 아이디어가 제안됨. - 동북아 크루즈 허브 도약 선언...준모항 정례화 추진 · 제주도가 포럼 개막식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앞세워 아시아 크루즈 산업을 이끄는 동북아 크루즈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으며, 위성곤 지사는 준모항 정례화와 인프라 구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선점하겠다고 밝힘. · 다만 크루즈 관광객의 70%가 제주를 방문하는 상황에서 준모항인 강정항의 승객 이동 통로·위탁수화물 처리 시설 등 개선을 위한 국비 80억 원 요청에 해양수산부가 난색을 표해 재원 확보가 과제로 남음. - 크루즈 관광객 입출국 간소화 법안 발의 · 김한규 국회의원이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자동심사대 운영과 복수항 관광상륙허가의 법적 근거를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. · 법무부는 제주항과 강정항 크루즈터미널에 총 38대의 자동출입국심사대를 도입·운영 중이나 법적 뒷받침이 부족했던 만큼, 개정안 통과 시 크루즈 관광객의 체류 시간 확대와 관광 편의 향상이 기대됨.
	인공지능 (AI)	- 공공부문 AX 선도정책, 국가 표준모델화 추진 · 위성곤 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에서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(AI) 등 제주 선도 정책을 국가 차원의 표준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비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건의하고, AI 서비스 '도민비서' 고도화 사업 지원을 요청함. · 제주도는 민선 9기 정책과제로 민생경제 회복, 기본사회 구축과 함께 인공지능 전환(AI)을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제주형 AI 행정 혁신을 국가 선도모델로 육성한다는 구상임. - AI 기반 분산에너지 통합 감시체계 구축 착수 · 제주도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분산에너지 자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예측·제어하는 통합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(ISP) 수립 용역에 착수함. 사업비 1억4,000여만 원으로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됨. ·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환경을 기반으로 발전·송배전·수요 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해 도민체감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성 속도를 내고 203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임. - AI 공유주차 등 주민밀착 공약 예산 도의회 제동 · 민선 9기 주민 밀착형 공약인 재활용 쓰레기 상시 배출과 도심지 AI 공유주차 시범사업 관련 용역 예산 2억7,000만 원이 도의회 예결위 심사에서 삭감되며 제동이 걸림. · AI 관련 신규 사업에 대한 의회의 검증이 강화되는 가운데, 공약 이행을 위한 사업 설계의 완성도와 사전 준비가 향후 예산 확보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.

정치·행정	기본사회	- 제주형 기본사회 시범도시 지정 건의 · 위성곤 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에서 제주형 기본사회 시범도시 지정을 건의하고, 제주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기본사회 정책의 실행력 확보와 전국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행정·재정적 지원을 요청함. · 제주도는 건의 사항이 정부 정책 사업에 반영되도록 후속 협의를 지속하고, 다른 지역이 활용할 수 있는 전국 확산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임. - 민선 9기 비전 '기후경제수도 제주'...100대 과제 추진 · 민선 9기 도정이 '먼저 만나는 미래, 기후경제수도 제주'를 비전으로 확정하고 민생경제 회복, 기본사회 구축, 인공지능 전환 등 7대 전략 중심의 100대 과제를 추진함. · 이달 말까지 공약사업 목록을 확정하고 공약실천위원회와 도민배심원단 검토를 거쳐 10월 초 공약실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, 매월 공약 성과 점검회의를 열어 이행 상황을 관리할 계획임. - 사회연대경제 혁신 모델 구축 지원 요청 · 위성곤 지사가 기본사회·AI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혁신 모델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하며, 제주 선도 정책의 전국 표준화에 시동을 걸었음. · 도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공동체를 연계한 제주형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통해 기본사회 구축의 실행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으로, 관련 건의안의 정부 정책 반영을 추진함.
-------	------	--

○ 경제·관광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, 주요 키워드는 **관광객** (여행), **농촌융복합**, **푸파페**, **콘텐츠**, **수출(바이어)** 등으로 나타남



[그림 2] 경제·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

○ 경제·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

	관광객 (여행)	- 제주 관광 양적 회복 속 체류·소비는 감소 · 최근 1년간 제주 방문자는 6.8%, 숙박 관광객 비율은 7.8% 증가했으나 체류 시간은 2.2%, 관광소비는 1.5% 감소해 외형적 회복에도 내실은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남. · 방문객의 서울 출발 비중이 47%에 달해 수도권 의존도가 여전히 높았으며, 관광객 수보다 체류와 소비를 늘리는 질적 전환이 지역경제 파급효과 확대의 관건으로 지적됨. - 고부가 럭셔리 관광시장 공략 본격화 ·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국내 럭셔리 관광객 유치 전문 여행사를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하고, 웰니스·미식·전통문화 등을 결합한 고품격 프리미엄 상품 개발에 착수함. · 참가자들은 천연기법 염색, 프리미엄 차, 환상숲 꽃자왈 야간 숲 해설 투어 등 제주만의 독특한 체험 콘텐츠를 경험했으며, 관광객 숫자 중심에서 부가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전략의 일환임. - 여름 휴가철 제주공항 154만 명 이용 전망 ·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이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가동함. 보름간 항공기 약 8,796편이 운항하고 국내선 131만 명, 국제선 23만 명 등 약 154만 명의 여객이 제주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됨. · 야간관광 수요에 맞춰 2층 오픈탑 시티투어버스 '야(夜)밤버스'가 금·토요일 운행을 시작하는 등 성수기 관광객 맞이 준비가 본격화됨.
경제·관광	농촌	-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 국제박람회 '푸파페 제주' 개막 ·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도가 주최하는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 국제박람회 '푸파페 제주'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나흘간 개최됨. 제주를 비롯한 전국의 6차 산업 인증업체들이 참여해 가공·제조·체험·관광의 부가가치를 선보임. · 아침 상회, 낮 농장, 저녁 식탁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강원·경남·충북·전남북 등 전국 농촌융복합 제품 전시가 어우러져 가족 단위 관람객의 호응을 얻음. - '농촌융복합산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돌파구' · 문대림 국회의원이 푸파페 제주를 방문해 전국 6차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, 농촌융복합산업이 대한민국 농업의 돌파구라며 제주와 K-농업의 미래성장 육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힘. · 행사장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들이 4,000여 개 물품, 2,500만 원 상당을 모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는 등 나눔 활동도 함께 진행됨. - AI·AX 시대 K-6차산업 대전환 국제포럼 · 푸파페 제주에서 'AI·AX 시대 K-6차산업의 대전환'을 주제로 국제포럼이 열려 인공지능이 농업과 지역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흐름 속 6차산업의 미래 방향이 논의됨. · 제주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디지털센터의 '제주DA 파트너스' 위촉식과 원탁회의도 진행되었으며, AI 드론·로봇 코딩 체험관 등 미래기술 교육형 부스가 가족 체험객들로 북적임.

경제·관광	푸파페	- '폭싹' 열풍 타고 제주 6차산업 훈풍 · 푸파페 제주 첫날부터 제주경제통상진흥원과 KOTRA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1대1 상담과 계약 체결이 이어지며 성황을 이룸. 참여 기업은 실구매 효과를, 바이어는 제주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을 호평함. · 제주의 청정 원물을 바탕으로 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제품들이 전국 유통망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며 K-농업 미래성장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함. - 제주상품 구매상담회 64억 원 상담 실적 ·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푸파페 제주와 연계해 도내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제주상품 구매상담회를 개최, 도내 중소기업·소상공인과 유통플랫폼 MD 간 1대1 맞춤형 상담을 지원해 64억 원의 상담 실적을 거둠. ·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제주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제품들의 전국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. - 경력단절여성 창업기업·청년 협업 성과 ·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원을 받은 제주 경력단절여성 창업기업이 청년과 협업해 푸파페 제주에 참가, 현장에서 인기를 얻으며 시장경쟁력을 입증함. · 청년에게는 자활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 창업기업에는 판로 확대의 장이 되는 등 박람회와 지역 일자리·창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여줌.
	콘텐츠	- 도외 유튜버 제주 장기체류 콘텐츠 제작 지원 · 제주도와 제주관광협회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구독자 1만 명 이상 도외 유튜버 7팀을 선정해 최대 200만 원의 제작비를 지원하는 '제주 장기체류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' 참여자를 모집함. · 장기 체류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제주의 매력을 크리에이터의 시각으로 담아낸 콘텐츠를 발굴해 체류형 관광 수요를 확대한다는 전략임. - 한일 펀드 1호 투자, 제주 AI 콘텐츠 기업 '새로핌' · 한국·일본 자본이 참여한 101억 원 규모 '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스타트업 펀드'가 첫 투자기업으로 제주 이전 기업 (주)새로핌을 선정함. · 새로핌은 인공지능 기술로 3차원(3D) 콘텐츠 제작 효율을 높이며 글로벌 콘텐츠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업체로,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음. - 마을여행 '카름스테이' 서울 도심서 팝업 · 제주관광공사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(DDP) 농부시장에서 제주 마을 여행 통합브랜드 '카름스테이' 팝업 행사를 운영, 수도권 방문객에게 제주 마을 여행의 맛과 소리, 색 등 다채로운 매력을 소개함. · 천지연폭포의 체류형 포토존이 방문객 호평을 얻는 등 체류시간 연장과 관광 만족도를 높이는 체험형 콘텐츠가 성과를 내는 흐름과 맞물려 콘텐츠 중심 관광 전략이 확산됨.
	수출 (바이어)	- 상반기 제주 수출 4억4천만 달러...역대 최고 ·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5.6% 증가한 4억4,231만 달러로 역대 상반기 최고 실적을 기록함. · 반도체 수출 성장 속에 전통 품목도 호조를 보였으며, AI 전환과 5G3특 전략과의 연계가 향후 과제로 제시됨.

○ 지역·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

지역·사회	폭염 (열대야)	- 제주 전역 폭염경보…낮 최고 36.5도 · 대서를 맞은 제주 지역 낮 최고기온이 36.5도까지 오르는 등 제주섬이 펄펄 끓었으며, 폭염경보가 제주시·서귀포시 전 지역으로 확대 발령됨. ·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며 주말까지 비 소식 없이 밤낮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졌고, 제13호 태풍 '돌핀'의 진로가 더위 해소의 변수로 주목됨. - 광어·돼지 폐사 등 폭염 피해 확산 · 서귀포시 대정읍 양식장 2곳에서 광어 폐사 신고가 접수되는 등 고수온 피해가 확인되었으며, 양돈장 돼지 폐사 등 무더위 장기화에 따른 축산·양식 분야 피해가 잇따름. · 제주도는 행정시, 국립수산물과학원 등과 합동 조사를 거쳐 고수온 피해로 간주하고 대응에 나섬. - 취약계층 보호·도로 살수 등 폭염 대응 총력 · 서귀포시가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취약노인 보호대책을 가동하고, 제주시는 살수차량 12대를 하루 2회 이상 운행해 도로 복사열과 도심 열섬현상 완화에 나섬. · 제주소방안전본부는 119 폭염 대책반을 운영하며 냉각용품과 응급처치 장비를 점검했고, 도청 사거리에서는 배달라이더 등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'돌코롬 다방'이 운영됨.
	구조	- 백록담 인근 호흡곤란 등산객, 헬기 대신 도보 구조 · 한라산 백록담 인근 등산로에서 50대 남성이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으로 거동이 불가능해졌으나, 짙은 구름으로 닥터헬기 이륙이 불가능하고 소방헬기도 정기검사로 뜨지 못하는 상황에서 119구조대가 달려 올라가 무사히 구조함. · 구조대원들이 성판악 탐방로를 통해 신속히 접근해 응급처치 후 안전하게 하산시켰으며, 여름철 고지대 산행의 안전 관리 필요성이 부각됨. - 해상·해안 사고 잇따라…인명피해도 발생 · 구좌읍 행원리 해상에서 50대가 물에 빠져 숨지고, 서귀포 문섬 인근에서는 40대 미국인 다이버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해상 사고가 이어짐. · 조천읍 신촌포구에서는 승용차가 3m 아래 갯바위로 추락했으나 50대 운전자가 구조되었고, 도두동 방파제에서 테트라포드 아래로 추락한 낚시객도 안전하게 구조되는 등 연안 사고 대응이 이어짐. - 소방·해군 합동 수중구조 전술훈련 · 서귀포소방서가 해군기동함대사령부 2구조작전중대와 함께 군·관 합동 수중구조 전술훈련을 실시, 제주 연안에서 발생하는 수난사고에 대비한 수중 구조 역량을 강화함. · 여름철 물놀이·해양 레저 사고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기관 간 공조 체계를 점검하고 실전 대응력을 높이는 취지임.
	곶자왈	- 동북·북촌 풍력 확장 곶자왈 훼손 논란 ·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동북·북촌풍력발전지구 확장사업을 두고 환경단체 곶자왈사람들이 사업 부지가 보전 가치가 높은 공유지 곶자왈이라며 도의회에 지구 지정 변경 동의안 부결을 촉구함.

지역·사회	꽃자왈	· 풍력발전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의결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, 공공기관에 의한 꽃자왈 훼손 우려가 제기되며 사회적 논란이 이어짐. - 꽃자왈공유화재단-백두대간수목원, 생태 보전 협약 · 제주꽃자왈공유화재단과 산림청 산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제주 꽃자왈의 식물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보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. · 두 기관의 연구 경험과 현장 정보를 모아 기후변화로 사라질 위험이 커지는 꽃자왈 식물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함. - 이도초 어린이들, 꽃자왈 나눔장터 수익금 기부 · 제주 이도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학교 자율활동 '이도생태환경' 수업에서 출발한 '꽃자왈 나눔장터'를 통해 모은 수익금 전액을 사단법인 꽃자왈사람들에 기부함. · 미래 세대가 제주의 생태축 꽃자왈 보전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로, 생태 교육과 실천이 결합된 모범 활동으로 평가받음.
	가뭄	- 마른 장마에 초기 가뭄...토양수분 39곳 중 25곳 부족 · 제주 장마가 평년의 3분의 1 수준 강수량만 남긴 채 일찍 종료되고 폭염이 이어지면서, 도내 토양수분 관측지점 39개소 중 25곳에서 수분 부족이 나타났고 8곳은 '매우 부족' 단계에 진입함. · 당근 파종기를 맞은 구좌읍 등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며 농작물 생육 저하가 현실화되는 상황임. - 가뭄대책 전담팀 가동...물뺏·양수기 선제 배치 · 제주도가 농작물 가뭄대책 전담팀을 운영하며 선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, 서귀포시는 동·서부 가뭄 취약지에 물뺏과 양수기, 송수호스 등 가뭄 장비를 선제적으로 배치함. · 농업용수가 부족한 농가의 요청 시 즉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, 구좌읍 등 동부지역 농가에 양수장비 지원을 강화함. - 농어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50% 긴급 감면 · 제주도가 가뭄·고수온 피해 확산에 대응해 농어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을 폭염·고수온 경보 해제 시까지 50% 감면하는 긴급 조치를 시행함. · 마른 장마 속 불볕더위로 농작물 가뭄 피해 증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농어가의 용수 비용 부담을 덜어 피해 최소화를 뒷받침하는 취지임.
	물놀이	- 하천 물놀이 구역 안전관리 강화 · 제주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이 많은 월대천과 옹포천 어울공원 수영장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관리를 강화함. 월대천에는 수상안전요원 6명이 배치되어 9월 말까지 운영됨. · 서귀포시도 하천·계곡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관리요원을 선제 배치하고 안전시설 점검과 예찰활동을 주기적으로 추진함. - 민관 합동 물놀이 안전 캠페인 전개 · 서귀포시가 안전보안관과 자생단체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솜반천과 정모시습터에서 여름철 물놀이 민관 합동 안전캠페인을 실시, 안전수칙 계도와 음주·다이빙 등 위험행위 예방활동을 펼침. ·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제주신화월드 워터파크에서 내·외국인 관광객 대상 '찾아

지역·사회	물놀이	가는 물놀이 안전교실'을 운영하며 심폐소생술과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함. – 심정지 소생·해파리 쏘임 등 물놀이 사고 주의보 ·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중 쓰러진 40대 여성이 1분 만의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회복하는 등 위기 대응 사례가 이어짐. · 신흥·평대해수욕장 등에서는 해수욕객이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, 물놀이 전 안전수칙 숙지와 해파리 출현 정보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.
-------	-----	---

※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(AI데이터연구지원센터)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,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.